

하지맞이 놀곳풀곳

본 프로그램북은
대면 공연 시 배포 목적으로
기획·제작되어
일정 등 온라인 극장의 내용과
상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없이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2018-2020

‘우리연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출발한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은 2018년 [연극동네 연희마당] 축제를 열어
탈춤, 굿, 판소리의 연극성을 되새기면서 탈춤을 닮은 창작아외극에 도전하였다.

즐거운 실험은 다음 해에도 계속되어 [판소리와 연극]을 주제로
판소리의 이야기와 음악이 오늘의 연극과 만나는 순간을 선보였다.

배요섭 연출은 판소리의 ‘소리’만으로도 엄청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임영옥 연출은 뮌헨의 『노부인의 방문』에 판소리가 가진 독특한 요소인
‘더늠’을 자유롭게 실험하면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굿이다!

전통연희에 판소리까지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았던 무대는 올해도 계속된다.

24절기 중 태양이 높아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시기인
하지(夏至)를 맞이하며 펼쳐지는 2020년 ‘우리 연극 원형의 재발견’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기다린다. 이름부터 즐거운 기운이 넘쳐나는

[하지맞이 놀곳폴곳]이라는 사업명으로 김민정 작, 남인우 연출의 창작신작 <불꽃놀이>와

더불어 배우(문민형), 연희자(김솔지), 미디어 아티스트(고동욱)의 과감한 실험이

돋보이는 3인 3색의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2018
연극동네 연희마당
연희감독 김학수

축제를 통해
연극계에 화두 제시

첫째마당 - 옛날연희
가면무 <나희(儺戲)>
굿 <황해도 칠물이 굿>
탈춤 <고성오광대>
둘째마당 - 창작연희
쇼케이스
<양반을 찾아서-비바의 노정기(路程記)>
이야기마당 우여곡설

4월
자문위원회 발족 및 연희감독 선임
7~8월
탈춤 워크숍(강사 허창열) 및
고성오광대 현지연수
9월
[연극동네 연희마당] 개최
2019년 1월
『연극동네 연희마당
우여곡설 기록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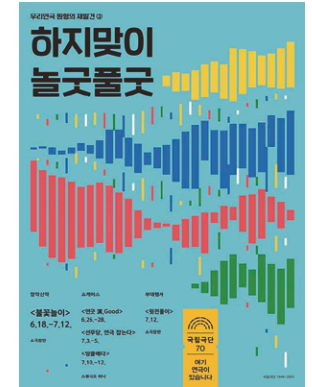


2019
판소리와 연극

전통예술을 활용한
작품개발 추진

쇼케이스
<<송파와 경이 -
<노부인의 방문> 3막에 대한 ‘더늠’>
<다 다른 길.목에서>
이야기마당 우여곡설

6월
쇼케이스 [판소리와 연극] 개최
8월
판소리 워크숍 (참여 창작집단 희비쌍곡선,
공연창작집단 뛰다, 국악뮤지컬 그룹 타루)
12월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2
-판소리와 연극』 출간



2020
하지맞이 놀곳폴곳
연희감독 남인우

한국연극 원형을 현대화한
동시대 창작극 개발

창작신작 <불꽃놀이>
쇼케이스
<연극 演, Good>
<선무당, 연극 잡는다>
<당클매다>
부대행사 <뒤틀풀이>
이야기마당 우여곡설

1월
굿 워크숍(강사 박정옥, 신동훈,
이윤정, 허시라, 김솔지)
6월
쇼케이스 및 창작공연
[하지맞이 놀곳폴곳] 개최
10월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자료집(가제)』 출간 예정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살던 언덕 위 초록 대문 집은 아래로 너른 병철이네 논이,
뒷산 너머로는 익준이네 엄마가 정성으로 가꾸던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가끔 한손엔 가위를 들고 장구를 둘러맨 엿장수가 오기도 했고 동네 어느 구석엔 작은 굿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에서 반대방향으로 15분만 달리다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짙통 나이기 신발이 진열되어있고, 귀한 밍크 이불 가게들과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들,
작은 리어카의 햄버거 노점상들이 쪽 들어 선 이상한 냄새와 낯선 얼굴들과 언어들이 가득한 곳,
바로 미 공군기지 앞입니다.

그 이질적 풍경 속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급작스러운 서구화로 인한 충돌들.

예술은 그 충돌들 속에서 지켜내려는 노력과 벗어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지켜야하는 소명의식과 도망치고 해체하려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동시대적인 예술의 언어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 욕망 속에서 갈등하는 존재였다면 지금의 세대들은 그 어떤 다른 요구도 없이 더욱 자유롭게
만지고 감각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런 젊은 예술가들이 지난 선배세대들의 실험과 실패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국립극단에서는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이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3년간 그 실험과 실패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판을 꾸리면서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명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무겁고 거창해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란 뭐지? 전 세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서울?
연극은 뭐지? 서양의 연극 문법을 말하는 건가? 원형은 또 뭐람? 아이고...

그래서 이번엔 그저 아주 쉽게 접근해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의 이해를
지금의 나의 언어와 만나게 해보자. 저는 '록 스피릿!'을 외치며, 청바지를 좋아하고, 기테의 연극의 3요소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의 감각이란 정말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저의 모습에서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시대성을 느낍니다.

그 느낌을 다양한 작업자들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가진 본질은 지금의 우리와 얼마나 닮아있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깊숙한 면이 얼마나 동시대적인지
실험과 실패 속에서도 충돌하고 마주하고 꺼내보며 섞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어쩌면 이미 섞여 있는 우리 모습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기를.

[하지맞이 놀국풀국] 연희감독 및
<불꽃놀이> 연출
남인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	19	20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21	22	23	24	25	26	27
					연극 演,Good 18:30 / 스튜디오 하나	연극 演,Good 14:00 / 스튜디오 하나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28	29	30	1	2	3	4
연극 演,Good 14:00 / 스튜디오 하나					선무당, 연극 잡는다 18:30 / 스튜디오 하나	선무당, 연극 잡는다 14:00 / 스튜디오 하나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5	6	7	8	9	10	11
선무당, 연극 잡는다 14:00 / 스튜디오 하나					당클매다 18:30 / 스튜디오 하나	당클매다 14:00 / 스튜디오 하나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20:00 / 소극장 판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12						
당클매다 14:00 / 스튜디오 하나						
불꽃놀이 15:30 / 소극장 판						
뒷전풀이 소극장 판						

※상기 일정은 극단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창작신작	불꽃놀이	2020.6.18.(목) - 7.12.(일) 소극장 판 김민정 작, 남인우 연출	공연소개 5페이지
	연극 演,Good	2020.6.26.(금) - 6.28.(일) 스튜디오 하나 연행자 문민형	공연소개 21페이지
쇼케이스	선무당, 연극 잡는다	2020.7.3.(금) - 7.5.(일) 스튜디오 하나 연행자 김솔지	공연소개 23페이지
	당클매다	2020.7.10.(금) - 7.12.(일) 스튜디오 하나 연행자 고동욱	공연소개 25페이지
부대행사	뒷전풀이	2020. 7.12.(일) 소극장 판 *<불꽃놀이> 공연 종료 후	공연소개 27페이지

창작신작 **불꽃놀이** Fireworks

일정 **2020.6.18.(목) - 7.12.(일)**
 평일 20시 / 주말 15시 30분 (화요일 쉼)
 장소 소극장 판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이 한국 전통예술의 요소를 찾아 발전 가능성을 시도했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작공연에 도전한다. '굿'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으로의 '굿'으로 재해석한 <불꽃놀이>는 10명의 배우가 다양한 시공간과 인물을 오가며 환상과 실재 사이의 경계를 형용어트린다. 찰나의 시간 속에 아름답게 피어난 불꽃놀이를 비유한 무대와 영상은 찬란했던 청춘의 기억을 소환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관객을 위로한다.

남인우 연출 인터뷰

<불꽃놀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굿에는 서사무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판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리데기', '심청전' 이런 것들이 다 굿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옛날에는 대부분 굿을 통해 이야기를 전수했어요. 그 이야기의 특징을 놓고 보았을 때 '굿에 담긴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형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둔 작품이에요. 물론 굿의 연희적인, 시청각적인 형태도 들어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사무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무가(敍事巫歌): 무당이 부르는 이야기 형식의 노래

그렇다면 <불꽃놀이>는 어떤 식으로 재발견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 서사무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진혼굿을 한다거나, 재수 좋으라고 재수굿을 할 때 바리데기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런데 바리데기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속 터지거든요. '부모님이 날 버렸어, 그것도 딸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15년 만에 찾아와서 자기가 죽었으니 저승에 가서 약 좀 구해달라고 해.' 짜증나죠. 근데 바리데기는 고민하다가 가요 거기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웬 남자를 만나 아들, 딸 낳고 몇 년을 살아주면 약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해요.

정말 박복하고 온갖 고난과 고초라는 건 다 겪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바리데기가 신이 돼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라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 그래, 무당인 내가 다 알아. 근데 너보다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나? 이 사람이 신이 됐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는 위로를 전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굿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턱, 저승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주는 이야기요. 그리고 진혼굿 등을 보면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산 사람에게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의 설움을 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확인받고 위로도 받는. 사실 굿은 다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현대인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십여 년 전쯤에 있었던 실화인데 지역의 한 젊은이들이 소나타 승용차에 12명이 함께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탑승했던 젊은이들이 사망하기까지 했던 일이 생겨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그중에 한 명이 살아났고, 또 다른 한 명은 코마 상태라는 가상의 설정에서 굿이 가지고 있는 원형(죽은 사람의 혼을 풀어줌)을 서구적 이야기의 방식으로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작가의 글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10여 년 전 인터넷에서 본 기사에서 출발했다. 5인승 소나타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열한 명이 타고 가다 전복된 사고 기사였다. 젊기에 부러보는 한때의 치기, 불꽃처럼 짧은 순간에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극화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두고 내용을 재구성하고 형식을 뒤집어 보기로 했다.

<불꽃놀이>에는 세 개의 시공간이 존재한다. 첫째는 회수(살아남은 자)가 반복해서 떠올리는 그날, 둘째는 코마 상태인 세영이 있는 우주, 셋째는 회수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여행길이다. '그날'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짧은 밤의 기억이다. 되새기는 이유는 잊지 않으려 함이 아니고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불꽃놀이를 하던 그 순간이 선연하게 재연되고, 떠올리기에다 두려웠던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임을, 죽은 친구들을 통해 받아들이게 된다.

우주는 무의식의 공간이다. 유일한 사고생존자인 세영이 코마 상태로 사투를 벌이는 공간이며, 생명을 다한 벌들이 충돌해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정신을 통해 죽은 자를 소환하는 방식 대신 시공간을 변형시켜 산 자와 죽은 자를 만나게 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원홀과 블랙홀, 중력의 개념을 가져오고자 했다.

이 극에서 회수는 끝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다. 회수가 가닿는 지점들은 모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곳이다. 난민들이 탄 기차를 통과시키는 폐쇄된 기차역, 히말라야의 출렁다리, 베트남 난민들이 탄 냉동트럭, 러시아의 죽음의 터널, 미국의 **Route 66** 등 구상은 구체적인 공간이었지만 공연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변형되었다. 삶과 죽음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 그러니 너무 그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더 나아가, 회수가 개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특히 함경도 망목굿은 죽음의 여행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망자를 안내하고 위로해 준다는데 착안하여 회수의 여행 속에서 친구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회수를 안내하고 도와주도록 구성했다. 이 연극은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에서 시작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 작품은 한국 연극 원형의 재발견 프로젝트의 하나다. 원형이란, 본질이고 정체성이다.

나는 <불꽃놀이>가 연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믿는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열린 무대에서만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음악, 영상, 시각예술, 움직임, 배우, 연출, 거기에 극작은 판을 벌이게 한 한 줌 토양일 뿐이다.

스태프들과의 열린 토론, 연습에서의 다양한 즉흥은 원형을 마주하기 위한 자유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이 작업을 이루어낸 연출, 배우,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긍정의 힘으로 판의 문을 열어준 국립극단 제작진에게도 늘 축제의 신이 함께하기를!!

2020년 하지를 맞아, **김민정**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날의 불꽃놀이! 순간이네. 너무 짧다."

그 날 이후, 희수는 아직도 스무 살의 기억 속에 갇혀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밤새워 놀고 돌아가던 그 날 새벽, 사고로 친구들을 잃는다. 함께 쏘아 올린 불꽃놀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희수는 혼자 죽음을 피했다는 끝없는 부채감에 시달린다. 스무 살의 기억에서 벗어나오기 위해 희수는 이 불꽃놀이를 끝내야 한다. 친구들이 이승을 떠난 그곳은 대체 어떤 세상인지 찾아 나서지만 언제나 제자리다. 여전히 희수는 우주 같이 볼 꺼진 방 안을 맴돌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흐르고, 친구들의 영혼을 놓아주기 위해 희수는 청춘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그 날을 다시 마주한다.



그 끝에는
절벽이 있는데,
절벽도
아름다워.



권은혜 Kwon Eun-hye

세영 Se-young

<안티고네> 19 | 이스메네 | 강동아트센터
<7번국도> 19 | 용순이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트라곤 킹> 18-19 | 연기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로미오와 줄리엣> 18 | 뱀블리오 | 강동아트센터 외
<미녀와 야수> 17 | 원숭이 집사 | 강동아트센터 외
<더 정글북> 16-17 | 모글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14 | 고양이, 간게쓰 | 산울림 소극장



김세환 KIM Se-hwan

민수, 푸르바, 난민 Min-soo, Purba and a Refugee

<스푸트니크> 19 | 소년 군인 | 나온 씨어터
<록앤롤> 18 | 스티븐 외 | 명동예술극장
<향수> 18 | 아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자본> 18-19 | 세환 | 물빛극장
<4Four> 17-18 | R | 혜화동 1번지 외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16 | 윤관석 외 | 연우소극장 외
<잔치> 16 | 진욱 외 | 남산드라마센터



김솔지 KIM Sol-ji

미술사, 이재 a Magician and I-jae

<프로젝트공구이오-팔도비빔판> 19 | 작·연출·배우 | 순희
<프로젝트공구이오-국악뽕쑈> 18 | 작·연출·배우 | 서촌공간 서로
<새로 쓰는 신민요-입소문> 18 | 타악주자 | 서울남산국악당
<어둠상자> 18 | 타악주자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행성에서 만난 미씨> 16 | 타악주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태백산맥> 14 | 타악주자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가문장아기> 12 | 출렁이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수상

2015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2010 서울어린이연극상 연기상

2004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MVP 수상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
내가 반주해줄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젊음이
사라졌더라도.
다리 저편은
완전 다른 세상이야.

불꽃놀이 **출연진 소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



문예주 MOON Ye-joo

다희, 가이드, 난민, 의사
Da-hee, a Guide, a Refugee and a Doctor

<보이 겐츠 걸> 17 | 테레사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맘모스 해동> 16 | 부인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칼리콜라> 14 | 케레아 | 학전블루소극장
<당통의 죽음> 13 | 당통 부인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꿈속의 꿈> 11 | 보희 | 남산예술센터



박소연 PARK So-yeon

지혜, 가수 Ji-hye and a Singer

<두뇌수술> 19 | 숙향 | 대학로 CJ아지트
<영지> 19 | 효정 | 국립극단 소극장 판
<분노하세요> 18 | 크레이지 송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페스트> 18 | 오통판사 부인 | 명동예술극장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18 | 이선생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청춘예찬> 16-17 | 간질여자 | 대학로 아트포레스트아트홀
<몽연> 03-05 | 가면인 | 나주문화예술회관



윤동원 YOON Dong-won

상철, 악사 Sang-chul and a Musician

<행복한 왕자> 19 | 멀티 | 강남씨어터
<래러미 프로젝트> 19 | 멀티 | 선돌극장
<열하일기-세 가지 이야기> 19 | 멀티 | 서촌공간 서로



이상홍 LEE Sang-hong

우영, 보안관, 난민 Woo-young, a Sheriff, and a Refugee

<명왕성에서> 19 | 잠수사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18 | 김씨 | 예술공간 혜화
<깨끗하고 연약한> 18 | 관장 | 예술공간 서울
<공포> 18 | 안톤 체홉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아리 아라리> 18 | 도편수 | 아리랑센터 외
<생존도시> 17 | 김사장 | 여행자극장
<승관도> 16 | 강도 갑 | 드림씨어터

**기억할게.
가장
빛나던 순간.**



이유진 LEE Yoo-jin

광옥, 철도원, 난민, 의사
Gwang-ok, a Railroad, a Refugee, and a Doctor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19 | 멀티 | 알과핵소극장
<가족연극> 19 | 미정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18 | 약방녀 외 | 남산예술센터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18 | 간호사, 사촌 형수 | 동양예술극장3관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15 | 검은 여자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외
<아> 05-06 | 정판수, 우인 | 극장 용 외
<춘천 거기> 05-08 | 주미 | 동송무대 소극장 외



주혜원 JOO Hye-won

현재의 희수, 의사 Now Here Hee-soo and a Doctor

<래러미 프로젝트> 19 | 레지 플루티 외 | 선돌극장
<믿음의 기원 2> 18 | 규연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18 | 아내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고도의 연극> 17 | 고도 | 공간 아울
<빛나무 동산> 15 | 류보비 | 선돌극장



최다은 CHOI Da-eun

그날의 희수 Then There Hee-soo

<행복한 왕자> 19 | 광대 | 강남씨어터
<래러미 프로젝트> 19 | 멀티 | 선돌극장
<열하일기-세 가지 이야기> 19 | 멀티 | 서촌공간 서로
<래러미 10년 후> 18 | 멀티 | 명동 CGV
<연출의 판-가제317> 18 | 멀티 | 국립극단
<어쩌면> 18 | 거울 | 서촌공간 서로
<오뎅세우스> 16 | 어머니, 개, 선원들 | 산울림 소극장

**어떤 별이
생겨나는 것처럼
또 어떤 별은
죽는거야.**



**내가
노래를
들려줄게.**

**새벽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12명 탑승' 승용차 전복 사고

불꽃놀이를 시작하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꽤 오래전 12명이 탑승한 소나타 차량이 전복된 사고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12명 중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고, 또 다른 한 명은 의식불명의 코마상태에 있다는 설정을 더하면 어떨까요?' 김민정 작가의 오랜 기억으로부터 불꽃놀이는 시작되었다. 제목을 정하는데도 꽤 많은 난항을 겪었다. '불꽃놀이'라는 명사가 주는 힘이 공연의 제목으로 명명되기에는 다소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불꽃'이라고만 하기에는 '놀이'라는 어감을 살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논의 끝에 공연의 제목은 <불꽃놀이>로 확정되었다.



모시랴오 관객 여러분을 모시랴오

공연 시작을 알리는 '모시랴오' 장면은 황해도 평산소놀이 중 '만수받이'를 차용한 장면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산신과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른을 모시는 곳거리로 곳의 시작을 알린다. 연극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극장이라는 공간과 관객이라는 손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순간이네, 너무 짧다!”
찰나를 비추는 우리의 불꽃놀이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록한
이 짧은 신문기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곳이 가진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

작품 속 12명의 인물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밤새 친구들과 놀고, 불금엔 치맥 파티를, 노래방 엔딩곡으로 빅뱅의 '붉은 노을'을 부르고, 면접을 앞두고 있어 무슨 복장으로 갈지 고민을 하기도, 방금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기도 했던 나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11명의 친구를 잃은 희수의 여정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녀 곁을 맴돌며 위로를 건네는 11명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이 가진 서사를 접목시키고자 했다.

소나타에 열두 명이 타는 법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로 출발하는 일명 '소나타' 장면은 극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첫 번째 소나타 장면에서는 마치 깊은 바다 속 해초가 넘실대는 것처럼 음악과 함께 아름답게 묘사된다. 음악에 맞춰 사고가 날 때 사람의 몸이 슬로우 모션으로 뜨는 것처럼, 천천히 붓 뜬 느낌으로 움직이다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이 빛과 만나 사방을 비추는 듯한 움직임이다. 두 번째 소나타 장면 또한 첫 번째 장면과 움직임은 같으나 음악 대신 침묵 속에서 사고의 순간이 펼쳐진다.



하늘과 땅, 그 어딘가 존재하는 공간이 뒤틀러버린 공간

희수는 무언가 가득 채워진 가방을 가슴팍에 안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에 오른다. 폐쇄된 기차역, 난민들이 탄 냉동 트럭 등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을 지나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가방을 히말라야의 어느 깊은 계곡의 출렁다리에서 만난 푸르바로 인해 놓치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젊음과 웃음도 잃게 된다. 그렇게 푸르바가 의도적으로 뒤틀어버린 시공간에서 열 한 명의 친구를 잃어버린 그 날의 희수와 여전히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떨치지 못한 현재의 희수가 만나며 본격적인 판타지 세계로 접어든다.



불꽃처럼 찬란했던 기억의 편린

작품 속 몇 장면들은 그 날의 불꽃놀이를 함께했던 인물의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다양한 각도에서 후렴처럼 반복된다. 불꽃처럼 금방 사라질 기억의 반복은 무질서하게 흩어졌던 희수의 여정과 맞닿으면서 그녀가 무심코 지나쳤던 인물들이 실은 언제나 자신의 곁을 맴돌았던 친구들임을 알게 된다.



비로소 이성을 떠난 세영을 위로하다

우주를 유영하던 세영은 별과 충돌하기 직전, 손잡아 주고 싶어 왔다는 희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깊은 물속에 잠긴 것 같은 고요함을 느낀다. '둥- 둥둥' 정적을 뚫고 나지막이 들려오는 목소리는 판소리에서 가장 느린 '진양조장단'으로 극적이고 서정적인 대목에 주로 쓰이는 장단이다. 장단에 더해지는 무가는 진도 씻김굿 냇소리로 죽은 사람이 생전에 풀지 못했던 소망이나 원망 등 한이 될 것들을 씻어내고 망자가 가는 저승길의 안녕을 빈다.

*무가: 무속의식에서 무당이 구연하는 사설이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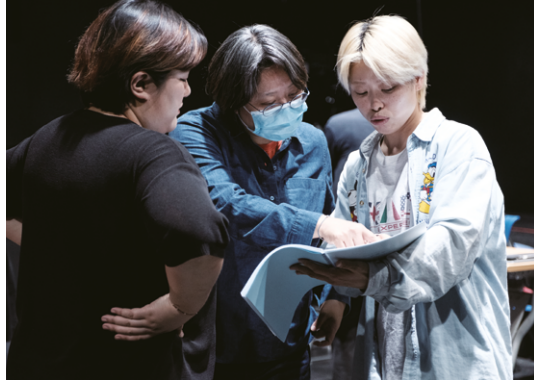
우주를 유영하는 세영

사고 이후 코마상태로 지내온 세영은 수년 동안 우주를 유영한다. '아직 살아있다.'고 씬 없이 외쳐도, 기억 속 떠오르는 이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차갑고 고요하기만 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세영은 씬없이 이승으로의 착륙을 시도한다. 이승을 떠나지도, 저승에 머물지도 못한 세영이라는 인물이 놓인 상황을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베가르기'와 접목해보고자 했다. 베가르기란 두 무당이 마주잡은 배 위를 한 무당이 신광주리를 잡고 무가를 부르며 오락가락하는 일로, 죽은 이의 넋이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기억할게, 가장 빛나던 그대들을

어떤 별이 생겨나는 것처럼 또 어떤 별은 죽듯, 수많은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는 이곳은 극장. 수 없는 실험과 시도가 때론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갈래 길에서 헤맬지라도 이 아득한 여정 끝에 있는 관객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 희수에게 항상 열 한 명의 친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으니! 많은 이들이 극장에서 주고받았던 생각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닌' 불꽃놀이처럼 작품 곳곳을 수놓았다.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이곳은 서계동 빨간 지붕 소극장 판!





음방
사라질 거야.

알아.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냐.



저기
멀리 있는 점
보여?
반짝이는
불꽃.

어.



너무 짧아.
너무
빨리
끝났어.



그래도
아름다웠지?



가장
아름다웠지.



불꽃놀이 스타프 프로필

작

김민정

KIM Min-jeong

작

연극 <브라질리아><다녀왔습니다><섬><달의 기억력>
<바다거북의꿈><등화관제><브루스니까 숲><싸움꾼들> 외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댄서의 순정><불멸의 사랑><오늘 하루 맑음>
창극 <만복사사랑가>
음악극 <에릭 사티><숲의 노래>

각색 및 윤색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로베르토 주코><준대로 받은대로><인형의 집>

드라마투르기

연극 <갈매기><푸르른 날에><발렌타인데이> 외

연출

남인우

NAM In-woo

연극 <래미 프로젝트><웃는 동안><보이 갯츠 걸><복세통의 겨울이야기>
<구름><소년이 그랬다><가문장아가><실종>
판소리극 <사친가><억척가>
창극 <내이름은 오동구><만복사저포기><브루스니까 숲의 노래> 외
수상 2017 한국연극 베스트7 <봉장취>
2016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연출상, 최고인기상 <봉장취>
2012 서울어린이연극상 연출상, 음악상
연기양상블 <재주 많은 다섯 친구>
2012 한국연극 베스트7 <소년이 그랬다>

미술

정민선

JUNG Min-Sun

연극 미술 <겨울이야기>
의상 <구름><네더><단편소설집><칼집 속에 아버지> 외
오페라 미술 <마하고니 도시의 변영과 몰락>
의상 <투란도트><호프만 이야기> 외
무용 미술 <루돌프><봄의 제전><진경화>
의상 <스윙><혼합><비가><토너먼트> 외

안무

이윤정

LEE Yun-jung

연극 <사물함><오렌지 복극><보이 갯츠 걸> <더 파워><체맥><구름><소년이 그랬다> 외
무용 <설근체조><1과 4, 다시><점과 척추 사이><On This In-Between Moment>
<75분의 1초><그늘에서 추다> 외

수상 2019 한국춤비평가협회 베스트작품 <설근체조>
2017 댄스비전 최우수작품상 <75분의 1초>

음악

옴브레

OHMBRE

연극 <자전거도독헬멧을 쓴 소년><호신술><김씨네 편의점><The Mental Traveller>
<그렌델><보물섬><As You Like It><변신이야기><코카서스의 백묵원>
<도둑맞은 책><정글북><바나야저씨><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아버지를 찾아서><오레스테스> 외

영상

라지웅

RA Ji-woong

연극 <해녀><연출의 판>
창극 <만복사사랑가>
전통예술 <오래된 미래: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전시 <서울의 전차><광장-Yellow Light><Vjing> 외

조명

고귀경

KO Gwi-kyoung

연극 <이게 마지막이야><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어딘가에, 어떤사람><여전사의 섬> 외
뮤지컬 <폴><재생불량소년>

음향

손희남

SON Hee-nam

연극 <코카커스 백묵원><망고><안동별곡><As you like it>
<멘탈트레블러><자전거도독헬멧을 쓴 소년><어느 노부부 이야기>
무용 <위로>
방송 <치즈인더트랩-파트5>
영화 <목소리><박쥐>
수상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록노래부문 수상 <아시안체어샷-해아>
2015 KBS <Top Band> 시즌3 우승

조연출

강현주

KANG Hyun-ju

연출 <시장극장><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

무대·소품디자인 보

신나경

SHIN Na-kyoung

무대디자인
연극 <언니들>
뮤지컬 <안녕, 내일><사자후>
오페라 <1948년 침묵>
공간 <몽-데이>페스티벌 <2019 서울거리예술축제-파이프 시티> 외

무대디자인 보

연극 <엘렉트라>
뮤지컬 <최후진술><재생불량소년-쇼케이스>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변영과 몰락>

전시 <뻐한 방울토마토>

의상디자인 보

이주선

LEE Ju-seon

의상디자인
연극 <듀랑고>

의상디자인 보

오페라 <투란도트><마하고니 도시의 변영과 몰락>
국악공연 <천생연분2>

미술감독의 글

삶과 죽음, 기억과 실제, 헤어짐과 만남, 회피와 치유

그 경계 어디쯤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지맛이 놀곳폴곳]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을 때 다가온 첫 인상은

그 '경계'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현대판 곳으로 보여지는 이번 이야기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시공간은

다른 시공간으로 가는 경계의 공간과 같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시공간으로 가는

그 통로는 그 깊이가 알기 어렵고 실제와 기억이 혼재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범위일 수도 혹은 우리 DNA에 저장된 증명되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경계너머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장 판'과 '스튜디오 하나'는 이런 세계관을 반사시키기 위해

거울과 같은 반사되는 재료를 이용해 공간을 감싸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더 확장시키고 반사된 혹은 복사된 세상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기 위해

LED를 곳곳에 설치해 극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야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억, 경계, 그 너머 이야기들을 구분 짓기 위해 의상, 소품에서 색을 제한하거나

강조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곳곳에 빈 의자에 놓인 소품들은

마치 그 주인들이 앉아있듯이 관객들 옆에 놓여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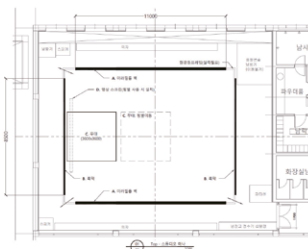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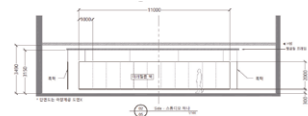
관객은 무대의 안쪽에서 도넛과 같은 공간구성의 경계를 만듭니다.

경계의 공간은 구분 짓기 위함이 아니라 평행선에서

뻗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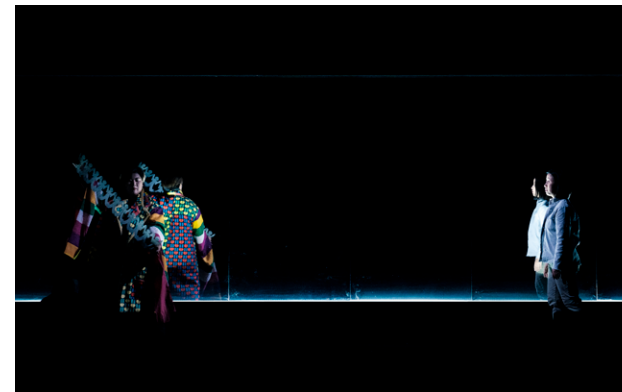
삶의 모호함 속에서 아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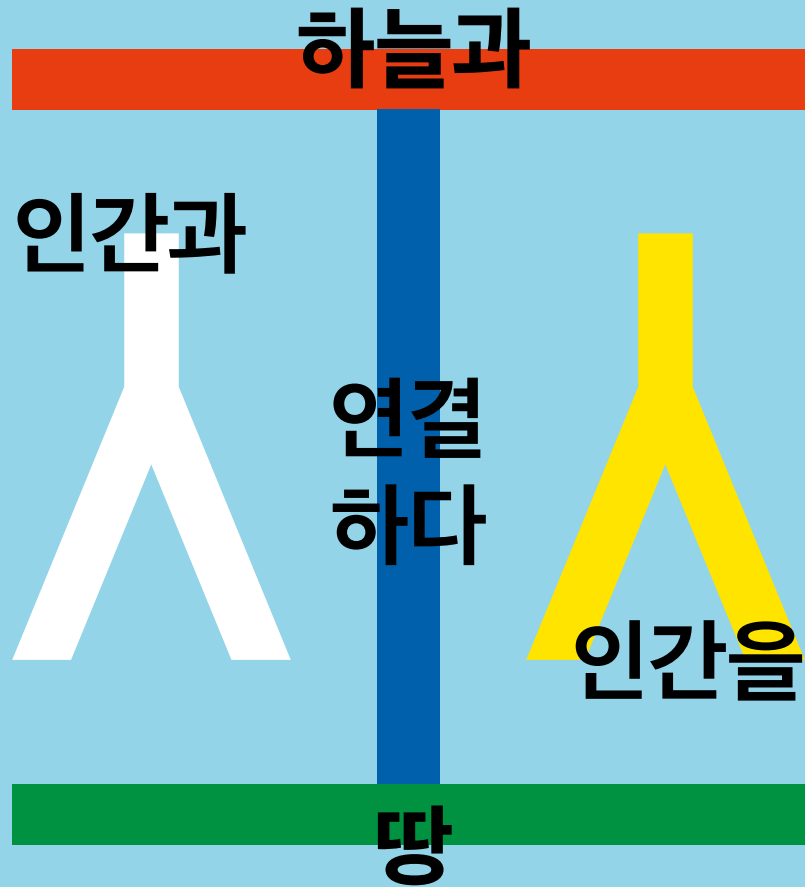
모두 하나로 치유되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불꽃놀이> 무대·소품·의상 디자인
및 쇼케이스 공간디자인

정민선





여기 세 명의 연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편의 굿이 있습니다.

태양이 땅에 드리운 시간이 가장 짧은 하지를 맞아,
3명의 연행자가 3편의 굿을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선보입니다.

‘굿’으로부터 출발한 이상아릇한 생각

제가 굿을 처음 접했던 건 굿판이 아니라 굿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후 전사통보를 받고 집안이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전사 통보를 받은 할머니는 마지막 수단으로 동네 당골에게 굿을 부탁했고 굿을 하던 당골은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내가 줄곧 상육이랑 같이 있다가 설날 떡국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그만 상육이를 잃어버렸다. 미안하다.' 라고 울먹이면서 곧 찾아줄테니 걱정말아라, 했다는 겁니다. 곧이어 무당은 점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짓말처럼 3개월 뒤 아버지는 포로수용소에서 생존이 확인되어 우여곡절 끝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뒤 무당은 집안의 길흉성사를 같이하는 당골, 아니 우리 집안이 무당의 단골이 되었지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뵈지는 못했지만 어린 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저는 당대의 큰 만신들을 작업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분들을 직접 뵈면서 또 다른 매력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굿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존재, 신과 인간을 연결하고 삶과 죽음을 연결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행자, 무당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한 능력, 과장된 몸짓, 괴상한 말투

마을 안에 있으면서도 마을 밖에 있고

굿 판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일상에서는 천대받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고 위로하며

책임 질수 없는 미래를 호언장담하고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칼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추며

자기 자신을 버려 신의 말을 하며

진짜 인지 가짜 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모두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빌며 기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울고 웃게 만들어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오묘하고 쿼어적인 경계인이자 연결자인 무당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봅니다.

누군가의 입을, 몸을, 공간을 빌어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만나

새롭게 재해석한 연행자로서의 무당을 세 편의 쇼케이스를 통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지맛이 놀곳폴굿] 연희감독 **남인우**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③ 하지맛이 놀곳폴굿] 쇼케이스는 굿이 가진 소통, 위로, 공감의 메시지를 재해석한다. 연극과 굿의 접점을 찾는 다양한 시도로 굿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연극과 관객을 잇는 연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의 쇼케이스는 다양한 분야의 연행자 3명이 작품의 주제, 형식 등을 구성하여 제작한다.

* 연행자: 전통 굿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보통 무당이 그 역할을 한다.

연극 演, Good



일정 **2020.6.26.(금) - 2020.6.28.(일)**
 금요일 18시 30분 / 주말 14시
 장소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

공연소개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매체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배우 문민형이 연행자로
 나선다. <연극 演, Good>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의 장으로서 굿판을 펼쳐 관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꿈꾼다.
 드랙*쇼(Drag Show)의 형태를 통해 전통 굿에서
 연행자의 역할을 하는 무당이 타인의 입을 빌어
 죽은 자의 한과 산 자의 님을 풀어주는 것처럼,
 무대에 있는 연행자는 제3의 인물이 되어
 관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드랙 Drag

사회적으로 고정된 성 역할에 따라 정해진 옷과
 행동거지를 다른 성에 맞춰 바꾸는 것을 일컬음

시놉시스

감정이 메마르고
 서로의 호흡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더욱이 소통이 간절해지는 시대.
 천둥소리가 한 차례 울고 지나간 이곳 극장에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연행자가 등장한다.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나는 비광... 없어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슬픈 광”
 소수자의 고뇌와 우울한 현대인의 초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대변하며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의식을 펼친다.



만드는 사람들

연행자 문민형

연극 <웨어하우스> 19 | 지화자 | 스튜디오76
 <반쪽형제> 16 | 상혁 | JH아트홀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18 | 꼬 닭 | 코엑스 컨퍼런스룸
 <17세>15 | 양씨 | 아트원씨어터
 <프로듀서>15 | 주지훈 | 신도림 프라임아트홀 외
 <드랙퀸>13 | 지화자 | 대학로 SH 아트홀 외
 드라마 <질풍기획> <황후의 품격> 외
 영화 <뉴스데스크> <제목없는 이야기>

작/연출	이상곤
의상	오미정
음향	전재호
조명	정채림
분장	김보람
조연출	신민기
출연	문민형
	신민기
	정몽혁

선무당, 연극 잡는다



일정 **2020.7.3.(금) - 2020.7.5.(일)**
 금요일 18시 30분 / 주말 14시
 장소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

공연소개

<선무당, 연극 잡는다>를 이끄는 연행자 김솔지는 전통연희 전공자이면서 동시에 음악밴드 동인,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전통예술과 현대미학이 만나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여 왔다. 여기에 연극 <7번국도> 등으로 주목받은 신예 극작가 배해률과 실력파 뮤지션이자 음악감독 및 연출가로 활발히 활동해온 김현기가 연출로 나선다. 공연은 연극 때문에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선무당 김솔지의 1인극으로 셰익스피어와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인물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놉시스

“좋다. 내가 오늘 이 극장에 제대로 된 부정치기* 한 판 해주겠다!”
 강력한 영가의 기운을 느끼고 극장의 부정치기에 나선 선무당 김솔지. 극장에 침투한 영가의 정체를 찾아 휘파람을 불며 곳곳을 살핀다. 그리고 이내 객석 틈에 피투성이 된 채로 웅크리고 있는 이들을 마주한다. 가만 살펴보니, 이 사람들. 아니, 이 귀신들! 모두 연극 때문에 죽었구나?

*부정치기
 집안에 잡귀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



만드는 사람들

연행자 김솔지

<프로젝트공구이오-팔도비빔판> 19 | 작·연출·배우 | 순회
 <프로젝트공구이오-국악쌈소> 18 | 작·연출·배우 | 서촌공간 서로
 <새로 쓰는 신민요-입소문> 18 | 타악주자 | 서울남산국악당
 <어둠상자> 18 | 타악주자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행성에서 만난 미씨> 16 | 타악주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태백산맥> 14 | 타악주자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가면장가> 12 | 출렁이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수상 2015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2010 서울어린이연극상 연기상
 2004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MVP 수상

작	배해률
연출	김현기
조명	이지후
영상	라지웅
의상디자이너	정민선
의상제작	황수필
움직임	이윤정

출연	김솔지
----	-----

당클매다

일정 **2020.7.10.(금) - 2020.7.12.(일)**
 금요일 18시 30분 / 주말 14시
 장소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



공연소개

연행자 고동욱을 대표로 하는 다원 아티스트 그룹 이스트하그(EASThug)는 2020년 1월에 선보인 공연 <굿, 트랜스 그리고 신명>에서 전통 굿의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트랜스 상태로 진입한 연주자의 뇌파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당클*매다> 공연에서는 무대의 빛과 재해석된 굿의 음악을 통해 그들의 세계 속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그 일부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예술을 통해 위로받았던 그들의 경험을 관객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굿'이 가진 위로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소리로 신을 불러내니 신이 빛이 되어 찾아왔다!' 흔히 '굿'하면 떠오르는 변화무쌍하고 전통적인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과 집약적이고도 폭발적인 굿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현한 화려한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실시간으로 객석과 호흡하며 다양하게 변주되는 굿의 이미지는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당클

제주에서 굿을 할 때 집 안의 중심이 되는 마루의 상단에 신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신의 자리



만드는 사람들

연행자 **고동욱**

미디어 아트 그룹 EASThug 대표
 창작집단LAS 단원

연출 <굿, 트랜스 그리고 신명>

영상디자인 연극 <우리별> <산책하는 침략자> <왕복서간>
 뮤지컬 <월명> <적벽> <경성 스케이터> <난설> 외

무대디자인 연극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연출/VJ **고동욱**
 음악/DJ **심준보**
 인터랙티브디자인/VJ **김상완**
 무대 **양이삭**
 촬영감독 **이산하**

뒷전풀이란 굿판에 모인 모든 잡귀와 집신들을 잘 먹여 보내는 굿의 마지막 의식으로
 굿과 함께한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하지맛이 놀고풀굿]의 대미를 장식하는
 스페셜 커튼콜로 쇼케이스 <연굿 演, Good>, <선무당, 연극 잡는다>, <당클매다> 공연팀과
 창작신작 <불꽃놀이> 공연팀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한 음악과 영상을 바탕으로
 신명나는 **VJing** 파티를 펼친다. 마지막이기에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작품 속 인물,
 극장 어느 한 곳에 존재했을 떠도는 영혼, 공연에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한 관객들을 잘 보내고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고자 한다.

워크숍

일정 **2020.1.8.(수) - 2020.1.13.(월)**

장소 스튜디오 하나 외

강사 박정욱, 신동훈, 이윤정, 허시라, 김솔지

황해도 철물이 굿 워크숍

강사 박정욱

2020년 1월 8일(수)

굿 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

모든 물건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
 그 신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이다.



전통 장단 워크숍

강사 김솔지, 허시라

2020년 1월 9일(목)

01 | 구름과 박수로 함께 장단 익혀보기

02 | 장단의 강세에만 박수쳐서 익혀보기

03 | 장단의 강세에 맞춰서 발걸음을 움직여보기

04 | 장단에 맞추어 각자 자유롭게 움직임을 만들어보기

05 | 정해진 장단에서 함께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보기



움직임 워크숍

강사 이윤정

2020년 1월 10일(금)

인식하며 움직이기

춤은 일상의 움직임에서 에너지를
 조금 더 발생시키는 것.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위는 금지.



거상춤, 서도소리 워크숍

강사 박정욱

2020년 1월 10일(금)

혼을 보내는 과정

긴 흰 천을 사용한다.
 천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를 의미한다.
 조상굿에서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는 과정이다.
 긴 천을 깔아 놓고 위에 곡식을 뿌린다.
 다같이 혼을 기리는 노래를 부른다.
 천을 찢고 지나다니는 행위는
 혼이 저승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혼을 기리는 행위를 다 마친 후 천을 걷을 때는 뒤로 걷는다.
 천을 다 걷고 나서 땅에 내려놓으면 망자가
 저승길로 무사히 간 것을 의미한다.



한국 무속신화가 말하는

삶과 죽음

강사 신동훈

2020년 1월 11일(토)

무속신화와 우주관

"하늘과 땅이 갈라진 사이에 인간이 태어난다.
 무속신앙에서 저승은 이승과 봤을 때
 수평적인 곳 경계의 곳이라고 생각한다."

**매일이 정상으로 이어진 삶,
 그 삶이 쌓여서 정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정으로 쌓은 저승 공간은 계속 쌓이고 늘어난다!"

"그 이야기와 신화들이 만나서
 우리 이야기와 만나면 그 삶이 신화가 된다.
 그 사람이 살아 온 길, 과정이 바로 신화가 되는 것!"



<불꽃놀이>

출연 권은혜 김세환 김솔지 문예주 박소연
윤동원 이상홍 이유진 주혜원 최다운

작 김민정

연출 남인우

미술 정민선

음악감독 이윤정

음악 음브레

영상 라지웅

조명 고귀경

음향 손희남

조연출 강현주

무대·소품 디자인 보 신나경

의상 디자인 보 이주선

의학자문 김신애

영상오퍼레이터 라지웅

조명오퍼레이터 김세희

음향오퍼레이터 박정현

의상진행 최단비

소품제작 품스

소품제작팀 박현이 이주연 최소리

의상제작 CND

조명팀 윤지영 신경배 갈현진 전규상 천세현

음향팀 김학준

영상장비대여 (주)두잉미디어

홍보사진 나승열

홍보사진 분장 이수연 하우연

연습·공연사진 김신중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

쇼케이스

연행사·제작 문민형 김솔지 고동욱

공간디자인 정민선

공간디자인 보 신나경

무대진행 박성은

영상팀 천주연

프로필·공연사진 김신중

기록영상 미니멀랩 프로덕션

<불꽃놀이> · 쇼케이스

연희감독 남인우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정빈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이재훈 김영주

무대제작 쇼먼트

무대제작팀 박기덕 김나리 고현종 전진 박정흠

박동민 김인권 최세현 이은영

팍트인 허강현 김진성

조명 LED 기술지원 윤여은

조명팀 김지우 손민영

영상팀 정혜지 이영근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조영채 이승이

마케팅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7기

김가은 김현기 심하린 이화승 정예림 현석현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효진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김나래 이경선

메인디자인 슬로워크

응용디자인·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봄봄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물인쇄 태산인디고 인터aim

프로그램 인쇄 효성인쇄

작품개발·워크숍 정명주 지영림

자료집 출판 조유림

자료집 기록 나수경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심소연 박소영

제작진행 전소은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김영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 회계법인 상무 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조유림 작품개발·출판

최우정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철순 정채영 이정민

심소연 박소영 최유진 프로듀서

박서영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이승이 조영채 최윤영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이경선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나해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경은주 이승수 무대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의상감독

백혜원 김민주 김세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김시내 비서·경영공사·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연구조사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권령아 연수단원

2020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www.ntck.or.kr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